

BASF-Omya, 제지화학 기술 제휴!

Omya, 안료 기술정보 앞서 ... BASF는 제지화학 매출 연평균 5% 확대

BASF가 안료 생산기업인 Omya와 제지산업에 화학제품 및 기술정보를 공급하기 위한 비독점적 제휴를 맺고 제지 및 코팅 분야에서 공동 소비자 프로젝트를 전개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양사는 제지 및 코팅용 화학물질, 안료, 필러(Filler) 분야의 전문기술을 공동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Omya는 안료 및 필러로 사용되는 Ground Calcium Carbonate의 최대 생산기업으로 BASF의 Ludwigshafen 소재 제지코팅 파일럿 플랜트에서 자체 실험 및 공동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Omya는 안료 기술정보가, BASF는 기타 제지화학제품의 기술정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BASF는 제지화학제품 사업을 제지산업 성장률의 2배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Hercules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BASF의 제지화학 매출은 2002년 8억5000만유로(9억2500만달러)로 유럽에서 59%, Nafta에서 19%, 아시아에서 18%, 남아메리카에서 4%를 차지했다.

BASF는 매출 확대를 위해 5억유로를 투자하고 2006년 매출을 10억유로로 5%씩 증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Wet-End 화학제품 및 제지코팅사업 인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BASF는 수익마진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2년 12월 네덜란드 Arnhem의 분산제 플랜트를 폐쇄한 뒤 6월까지 완전 철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BASF는 또한 수익이 낮은 텍사스 주 Freeport의 Polyethyleneimine 플랜트를 폐쇄할 것으로 보인다.

BASF는 인도네시아 Cengkareng의 분산제 생산능력을 2004년 4월까지 9만5000톤으로 4만5000톤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의 분산제 생산능력 역시 증설 대상인데, 아시아는 곧 Nafta를 따라잡아 BASF의 2대 제지화학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BASF는 최근 핀란드 Hamina의 분산제 14만톤 플랜트를 완공해 북유럽의 코팅 바인더(Binder) 수요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Ludwigshafen 플랜트의 Polyvinyl Amine 6만톤 플랜트를 완공했으나 시장도입이 일러 가동률이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BASF는 또한 Polyvinyl Amine을 기초로 화장품, 농화학, 초강력접착제 용도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의 제지 생산량은 3억2000만톤에서 10년 내 4억-4억500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료 소비량은 3000만톤에서 4500만톤으로, Calcium Carbonate는 1700만톤에서 2700만-300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Omya는 Ground Calcium Carbonate 생산능력이 1050만톤인 세계의 선도적인 공급기업이며,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생산능력은 Minerals Technologies 및 J.M. Huber에 이은 세계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Chemical Journal 2003/08/08>